

A Survey on the political and social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in Je-Ju island

IN JE KIM

1) This study is a Survey on the political and social valu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of Je-Ju island.

In consequence of this study, it may be contributed to the guidance of 'National Ethics'

Je-Ju island has been undergoing serious changes since 1945, Je-Ju island is still in a real situation of fluidity without establishing order in all fields.

people often say that it is difficult for Je-Ju society to have its sense of direction and order unless it develops or discovers for new value systems to appropriate to Korean reality. It seems, however, impossible to develop or discover the new value systems without first ascertaining accurately what are those values that are in a status of fluidity today.

2) 350 students of Je-Ju university and Je-Ju teacher's college are chosen as the subject for this study 290 students of them responds to this study, and this is managed from the view of point of mathematics.

This item of survey is as follows.

Political Values

- ① The opinion of absolute support to a constitutional law of restoration.
- ② The opinion towards the drift of a current direction of the new community.
- ③ The opinion of all parties concerned of the new community.
- ④ The task obliging to be done by "restoration of October".
- ⑤ The talent obliging to be obtained by the leaderships of regional community.
- ⑥ The problem of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by the students.

- ⑦ The study towards concentration of our attention to democracy.
- ⑧ The reason not remoting growth of democracy.
- ⑨ The opinion towards indefinite mind.
- ⑩ The problem of sightsesing development and national preservation.
- ⑪ The opinion towards the synthetic developement of Jēju-do

○ **Social Values**

- ① The problem of this traditional customs and new way of thinking.
- ② The opinion about modernity in values.
- ③ The problem tradition and modernize.
- ④ The participational problem as servies to the public.
- ⑤ The direction of a new values.
- ⑥ The marital values.
- ⑦ The opinion about ancestor worship.
- ⑧ The opinion towards the improvement of a system of a grow.

濟州地域의 大學生의 政治的, 社會的 價值觀 研究

—「大學국민윤리」教科의 展開를 위한 調査를 중심으로—

金 仁 濟

.....目 次.....

I. 問題의 提起	5) 民主主義에 대한 意見
1. 問題의 意識	6) 民主政治와 批判精神 문제
2. 問題의 提示	7) 韓國의 民主主義 土着化에 대한 의견
3. 本研究의 目的	2. 社會的 價值觀
II. 研究方法	1) 近代化와 傳統의 문제
1. 基本方針	2) 觀光資源開發과 自然保存문제
2. 質問書의 確定	3) 濟州道綜合開發의 문제
III. 結果와 分析	4) 새마을事業 전개의 方向
1. 政治的 價值觀	5) 社會參與에 대한 態度
1) 維新憲法案 통과에 대한 反應	6) 宮合에 대한 態度
2) 維新課業추진 擔當者에 대한 意見	7) 父母喪에 대한 意見
3) 地域의 指導者觀	8) 墳墓制改革에 대한 意見
4) 維新課業과 精神改革 문제	IV. 要 約

I. 問題의 提起

1. 問題 意識

2次대전후의 冷戰體制가 최근에 이르러 점차 和解무드를 이뤘오더니, 平和共存體制로 급진회하는 국제정세의 격동기에 우리는 처해있다.

우리는 특히 '닉슨·독트린'의 추진, 中共의 UN加入과 勢力膨脹, 美·中共의 接近과 日本의 對中共 및 對北韓接近경향, 中·蘇對立 激化, 兩極體制的 붕괴와 多元化 現象등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는 주변정세의 變化趨勢에서 새로운 國際的 挑戰要因을 직감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國際情勢의 變化氣流에 평승해서 武力統一의 야욕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 아니된다.

祖國光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북한의 再侵의 위협가운데서도 굶힘없이 美國을 위시한 자유진영 諸國家의 보호아래서 民主主義를 成長시킬 수 있었다. 즉 溫室 안에서 民主主義라는 花草를 가꾸어 왔었다. 그러나 國際政治의 激變趨勢는 ideology의 名分論에서 現實的 國家實利論으로 탈바꿈을 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따스한 溫室에서 이제

強風이 불어오는 溫室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韓國의 狀況과 風土에 알맞는 民主主義가 요구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必然的으로 취해진 것이 「10月維新」의 大號令이던 것이다.

民族의 生存과 繁榮을 기약하고, 平和的統一의 성취와 韓國의 民主主義의 定立 및 社會改革을 위해서 民族的 實現課題로 내세운 民族運動의 지표가 10月宣言으로 定立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준엄한 歷史的 時點과 觀點에서 「10月維新」의 民族史的 意義를 理解해야 되겠고, 아울러 國家와 民族의 요청하는 國民이 되어야 하겠음을 통감하는 것이다. 外國에 依存한 것이 아니라, 自主, 自立, 自衛할 수 있으며, 勤勉하고 協同함으로써 自助精神을 함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창조적 개척정신과 긍지를 가지는 國民精神을 기르기 위해서 設定된 교과가 大學에 있어서의 “국민윤리”라 하였다.

우리는 이 敎科의 展開를 통하여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民主主義에 대한 더욱 확고한 信念을 가지고 反共生活을 하여 人間의 價値秩序의 正常化를 유지 회복하며, 民族的 긍지를 가지고 逆境을 극복해 나가는 不屈의 生活姿勢를 길러주어야 할 것을 切感한다.

우리가 지극히 사랑해마지않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將來를 맡아 받 전시킬 이 고장의 大學生들이 올바른 人生觀, 國家觀, 世界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方向으로 國民倫理敎科는 展開되어 나가야 될 것인바, 과연 濟州地域의 大學生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變化해 가는 國內外情勢에 대해서는 어떤 反應을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現在 쓰여지고 있는 敎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問題의 提示

韓國의 장래는 韓國의 젊은이의 손에 달려있다. 젊은 世代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 前衛를 맡아볼 大學生들의 態度가 어떠한에 따라 이 나라의 運命은 크게 左右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態度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가 意識 또는 無意識 가운데 가지고 있는 價値觀이며, 價値觀 가운데에서도 實踐行動과 가장 긴밀히 직결되고 있는 道德觀念일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大學生들이 품은 道德觀念을 探求하는 시도의 일부로서 計劃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研究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젊은 世代의 前衛로서의 이 나라 大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道德觀念을 알아보며, 둘째 이 지역사회의 大學生들의 政治的 態度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셋째 來日의 지도자요, 知性的 代辯者가 될 이 사람들의 社會的 價値觀등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왜 이러한 價値觀의 研究가 要求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별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이 겪고 있는 文化 및 價値混亂을 지적하고 近代化에 있어서의 價値觀의 位置를 먼저 살펴보자. 文化와 價値觀의 혼란이 社會關係를 混沌하게하고 精神生活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韓國의 實情에 비추어 이 문제를 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韓國은 주로 儒敎文化, 日本文化 및 美國文化의 混合으로 現在 支配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文化의 충돌현상은 일개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도처에서 보게된다. 한 職場內에서도 儒敎文化에 젖어있는 傳統的인 韓國人과 日本文化에서 온 形式主義 및 官僚主義에 젖은 權威主義者, 그리고 美國文化에 젖어있는 超現代人 등이 있어 그 構成員들은 겉으로 보기에 劃一的인 特色이 있는 것 처럼 보일지 모르나 內容을 보면 여러가지 複雜한 對人關係와 感情이 이들간에 交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異質的인 文化的 影響이 社會構成員 각자에 作用함으로서 發生하는 결과는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社會現象으로 나타난다. 世代間의 對立, 悲劇的인 家庭不和, 社會成員의 心理的 갈등, 集團間의 反目등이 그 몇가지 例이다. 따라서 儒敎文化, 日本文化, 美國文化등을 어떻게 調和시킴으로써 文化的 충돌 (Cultural conflict) 을 克服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問題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韓國社會가 指向해야할 목표는 近代化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近代化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떠들어댄다고 해서 實現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 각자의 價値觀의 近代化의 노력이 있지 않고선 實現되는 것이 아니다.

子女를 老後의 必要한 財産으로 인식하고 年長者는 年少者의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고 국민이 非合理的 迷信에 현혹되고, 직장에서는 情實的인 派爭이 빈번하고 國民間에 理解와 寬容이 결여되어 있고, 相互不信하며, 權力에 아부하고, 他者에 의존하는 따위, 그리고 形式과 虛榮과 虛飾에만 눈이 어둡고, 公私의 區別이 없고, 金錢追求에만 血眼이 되어있는 정신 상태가 國民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만큼 韓國社會가 지향하는 近代化는 늦어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短點은 한국사회 발전의 障礙요인이 될 수 있는 否定的인 가치로서 維新大業에 호응하는 한국인이라면 그런 短點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意見에 합의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거니와 과연 大學生들의 눈에 비친 價値秩序는 어떠한지 알 필요를 느낀다.

3. 本研究의 目的

이 연구는 現實的 價値事實을 그저 알기만하면 그것으로써 만족할 어떤 好奇心에서 단순히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 17 特別宣言 뒤의 大學生들의 社會的 現實에 대한 實踐的인 關心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德目的, 行動方向을 알아 國民倫理의 敎科展開에 자료로써 提供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은 學術的인 동시에 實踐的인 價値를 가질 것을 희망하면서 시작하였다. 韓國社會의 變動과 발전의 理解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科學的

으로 규명하려고 한 점에서 學術的이며, 이 研究의 결과가 濟州道내지 韓國의 近代化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점에서 實踐的이다.

“이데올로기” 對立에 의한 東西冷戰이라는 戰後 國際關係로 말미암아 희생된 우리, 國土의 分斷과 民族의 分裂을 강요당하고, 民族相殘의 슬픈 역정을 겪어야 했던 우리, 아직도 祖國統一의 悲願을 안은 채, 低開發國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우리의 實情을 외면한 채 冷酷하게 격변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소위 平和共存의 명분과 실리추구의 치열한 경쟁아래 또 다시 약소민족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이 작용될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고 보면, 우리의 生存權과 共榮의 扶持를 위한 젊은이들에 대한 覺醒과 愛國의인 態度的 確立은 다른 어떤것 보다도 緊要한 것으로 아는 바이다.

특히 民族의 生存과 繁榮을 기약하기 위한 救國의 措置요, 民族活路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自衛的, 自助的 노력이던 10月維新的 宣言이후의 이에 대한 大學生의 關心과 呼應度를 파악하는 일은 “국민윤리” 교과의 展開에 있어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영역인 것으로 믿고 이 방면의 조사를 모았으며, 아울러 濟州地方의 大學生들이 갖고 있는 倫理觀을 통하여 나타난 近代化 및 社會觀의 變化를 理解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나 제주도는 5·16혁명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觀光客의 來往, 그에 따른 附隨的 效果現象, 혹은 觀光開發등으로 在來의 慣習과 傳統이 적잖히 동요되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濟州地方의 大學生들의 價値觀의 變遷에 어떤 모양으로 작용했는가를 쉽게 파악될 것으로 믿는 것이다.

물론 한 社會의 變遷狀況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식에 의하여 社會를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없지 못할 것으로 안다. 그러나 本研究은 이와같은 대규모적인 연구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社會變動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價値觀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부기해 둔다.

II. 研究 方法

1. 基本方針

10月維新的 宣言이 있는 뒤의 濟州地域의 大學生의 價値觀의 변천과 종래까지 지탱해 온 바인 儒敎의인 道德的 思想的 變遷을 알고자 했으며, 어디까지나, 이 方面의 調查研究는 大學의 국민윤리교과의 指導의 方向을 재확인코자함에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첫째 被調查者의 先入見이 작용하지 않도록 豫防하기 위해 儒敎의 德目에 고집하거나, 皮相的인 口號 따위의 羅列를 피했으며,

둘째 被調查者의 實感에 호소하여 적극인 關心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변천되는 가치관

의 方向감각에 초점을 맞추었고,

	男	女	計
人 文 系	55	65	120
社 會 系	20	5	25
自 然 系	110	15	125
計	185	85	270

셋째, 調查의 시기를 10월 維新의 선
언이후로 잡았으며,

네째 調查對象者를 제주지역의 大學
生으로 (教育大學 포함) 잡았는데 그
비율은 左表와 같다.

2. 質問書의 確定

34問項에 이르는 質問書를 一次 120 男女學生을 對象으로 豫備조사한 結果를 놓고 信賴
度를 검토한 뒤, 假定과의 接近傾向을 살펴서 精選한 30問項의 質問을 濟州地域에 散在
해 있는 大學生 350명을 對象으로 研究者가 直接 教室로 찾아가 問項別로 朗讀한뒤, 직시
표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350명분의 應答中 未備된 것등을 除外한 270명분의 完全한 應答紙를
統計的 處理를 통하여 數字的 結果에 대한 分析을 시도했다.

얻은 應答紙 중 國民倫理 教科指導 및 教科內容에 대한 數字的 結果에 대하여는 紙面關
係로 이 論文에서는 除外 되었으나 後日 發表키는 작정하였다.

本研究에 있어서 統計에 나타난 數字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分析을 통하여 未來의 價値觀의 定立을 모색해 보거나 혹은 未來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
기 위한 現在를 파악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되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발표된 數
字는 濟州地域의 大學生의 의견의 표집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해석은 多樣할 수가
있을 것으로 안다.

따라서 비록 筆者의 解釋이 主觀性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해석의 對象이 된
統計的 數字 자체가 客觀性을 포함한 資料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Ⅲ. 研究의 數字的 結果와 考察

1. 政治的 價値觀

1) 維新憲法案 통과에 대한 반응

質問[1-1]: 維新憲法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보면 全國民의 支持를 받고 있습니
다.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까닭은 다음의 어느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의 해소에 대한 기대…………… ()

- ② 不正腐敗와 社會惡의 일소에 대한 기대…………… ()
- ③ 강력한 지도체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 ()
- ④ 남북회담의 추진을 위한 체제개편…………… ()

고 했을때 “南北對談의 추진”을 위한 體制改編에 35%의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부정부패와 사회악의 일소”에 대한 쪽이 33.7%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表 1〉 유신헌법안 절대적 지지에 대한 반응

		농촌 도시간 소득격차해소	부정 부패 사회악 일소	강력한지도체제	남북회담 추진
人文系	남	9.1	22.7	25.5	32.7
	여	7.8	23.1	44.6	24.6
社會系	남	5.0			20.0
	여	20	75	20.0	60
自然系	남	17.3	23.6	21.8	37.3
	여	20	53.3	13.3	13.3
계		12.6	33.7	25.92	35.0

그러면서 女學生의 反應은 42%가 강력한 指導體制에 대한 國民的요구의 표현이 維新憲法案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理由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을 끌게하는 것은 人文系 學生이 강력한 지도체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고 보고 있는 것이 多數인데 반하여, 社會系 學生은 부정부패와 사회악의 일소에 대한 기대쪽에 그 理由를 들고 있는 점이다.

社會系 學生의 눈에 비친 사회 소탕이 얼마나 時急하고 緊요한 緊任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우리는 이들 應答의 결과를 통해서 현재 大學生들의 維新憲法案에 대한 支持의 傾向을 엿볼 수 있으면서 나아가서는 大學生의 意思가 일반국민의 의사로 확대하여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않을가 한다.

大學生들의 現實 直視와 時局觀에 대한 自覺의 向方이 곧 이에 應答으로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① 維新憲法案의 통과는 組國統一에 대한 國民的 熱望의 發顯으로 보고 있다. 조국이 分章된지 4半世紀동안 우리는 한결같이 組國의 統一을 갈망하는 業원을 안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民族的 念願은 南北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의 개최등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可能性이 엿보이기 시작하자 더욱 강열해졌고, 또한 그를

위해서도 體制의 改編의 정비와 態勢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要求되었다.

따라서 우리 國民의 統一에 대한 열렬한 念願과 統一意志가 이와 같은 維新憲法에 대한 積極적인 支持贊成으로 나타난 것으로 대다수 大學生은 理解하고 있다.

② 指導者에 대한 信賴의 反應이 드러나 있다. 5·16이후 國政의 安定基調를 다질때까지, 政治, 經濟, 社會的인 혼란을 통해 뼈아픈 苦境을 헤메어 온 經驗이 있는 우리 國民은 무엇보다도 安定을 希求하고 있고, 그 安定은 강력한 지도체제가 있어야 되겠으며, 그러한 指導體制에는 지도자의 「리더쉽」에 대한 國民적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번 國民投票의 결과는 나의 安定과 繁榮에 대한 강력한 희구를 成就하기 위한 自각에서 연유한 것으로 大學生들은 理解하고 있다

③ 不條理없는 信義의 社會秩序 確立을 대다수 大學生들은 바라고 있다. 즉 밝고 명랑하고 알뜰한 社會를 이룩하겠다는 現政府의 對國民 公約의 성실한 遂行을 위해 憲法上的의 體制改編을 大學生들은 共感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不正腐敗등 社會公敵, 公害를 추방하고 公共秩序와 美風良俗이 振作되기를 國民은 現政府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質問에 대한 反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維新課業 추진 담당자에 대한 意見

우리는 前項에서 國民投票의 결과는 우리 國民들이 한결같이 유신과업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거국적인 노력으로 그를 성취시켜야 하겠다는 國民的 意志를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解釋하였거니와 大學生들에게 이 維新課業의 담당자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던 바

질문 [1-2] : 「앞으로 우리 國民은 새로운 각오로써 각 方面에 걸쳐 유신과업을 과감히 밀고 나가야 겠는데, 유신운동의 앞장을 서야할 층은 다음의 어느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政治人, 各 團體指導者…………… ()
- ② 教育者, 宗教人…………… ()
- ③ 言論人, 一般知性人…………… ()
- ④ 大學生, 青年團體…………… ()
- ⑤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또는 「새마을」지도자…… ()

이에 대한 응답 (表2 참조) 을 보면, 人文系 學生의 49%가 大學生및 青年團體가 앞장을 서야 한다는 데 반하여, 社會學生과 自然系 學生은 言論人 및 一般知性人의 활동에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70명중 34.5%의 학생이 言論人, 知性人의 활동에 기대를 가

지고 있으며, 역시 전체의 30.4%의 학생은 大學生과 青年團體의 活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從來에 기대를 걸어왔던 政治人이나 團體의 指導者에 대한 信賴度는 꽤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表2〉 유신운동의 '리더' (질문1-2에 대한 반응)

	정 단체	치 지도자	인 종교인	교 육자	업 일반	론 지성인	인 대 청 년 단 체	학 생	국 민 회 의 대 의 원	의 대 의 원
人文系	남	30.9	5.5	14.54	49.1	7.27				
	여	10.8	4.6	40	24.6	20				
社會系	남	10	20	40	30					
	여		9.1	60	40					
自然系	남	20		34.5	24.5	11.8				
	여			67	26.7	6.6				
計		14.07	7.47	34.45	30.36	11.4				

이러한 경향은 좀 더 참신한 曆의 活動으로서 維新大業을 성취시켜야 하겠다는 젊은 世代的 의욕의 表現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3) 地域의 指導者觀

維新課業 성취담당자에 대한 견해와 상당히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地域社會 指導者의 性格을 들 수 있다. 地域社會 開發을 밑고 나갈 指導者의 問題는 여러 角度에서 고찰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응답자들이 우리 고장의 指導者로서 어떤 類의 性格을 소유해야 되느냐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질문(1-3) : 「우리 地域社會 指導者로서 갖추어야 할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식, 판단력..... ()
- ② 정직, 공정..... ()
- ③ 겸손, 봉사심..... ()
- ④ 조직력, 포용력..... ()
- ⑤ 애국, 애향심..... ()

전체 대상자 270명중 79명 학생이 地域社會開發에 앞장설 지도자의 문제를 지식과 판단의 소유자로 의견을 표시했고, 다음은 75명의 학생이 正直과 公正을 들고있다. (表3참조)

첫째 및 두번째로 많은 응답을 가져온 응답을 분석해 보면 人文系 및 社會系 學生들은 知的, 判斷力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自然系 學生들은 正直, 公正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점을 洪承稷교수의 한국인의 가치관(註1) 연구에서 밝혀주고 있는 우리나라 全國國民의 指導者觀과를 비교해 보면, 洪教授는 우리나라의 農民은 첫째로 愛國愛族, 둘째로 正直, 公正, 세째로 知識, 判斷力을 요망하며, 大學교수는 첫째로 正直, 公正, 둘째로 知識, 判斷力, 세째로 愛國愛族을 지도자의 성격으로 分析하고 있는데, 本研究의 大學生의 응답이 大體로 全國의 大學教授의 응답과 서로 相通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表3> 地域社會 指導者觀 (질문1-3에 대한 반응)

		지식, 판단력	정직, 공정	겸손, 봉사심	조직력, 포용력	애국, 애향
人文系	男	21.8	27	10.9	7.29	32.8
	女	38.5	26.2	6.9	20	9.2
社會系	男	50	10	20		
	女	40	40	20		
自然系	男	18.2	31.1	11.8	9.1	29.1
	女	67	26.7	6.6		
計		29.7	27.7	10.7	11.5	14.8

<참고>

	과 단 성	정직, 공정	애국, 애족	지식, 판단력	겸손대중적	기 타
농 민	6.53	26.70	49.15	9.09	5.97	2.27
기 업 인	18.77	28.35	23.75	19.54	6.90	1.53
교 수	11.99	40.82	13.78	27.81	3.83	0.49

위 표는 洪承稷교수의 韓國人의 價値觀研究, P.123~表6~8에서 발췌하였음

4) 10月維新課業과 精神改革 문제

政府는 그 동안 社會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정부패는 물론 美風良俗을 해치는 각종 퇴폐풍조를 단속하는데 열을 올려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社會的 弊弊는 政府만의 힘으로 拔本塞源하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에 대한 國民의 覺醒과 參與가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0月維新의 물결을 타고 과감히 혁신시켜야할 倫理的 價値중에서 맨 먼저 어떤 部門의 일에서 부터 시작해야 精神的 價値가 物質的 價値보다 頂上을 찾아하는 소위 價値秩序의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데 대하여 大學生의 견해는 다음과 같았다.

註1) 洪承稷: 韓國人의 價値觀研究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1, P.123참조

質 問〔1—4〕

제주도에서 「10月維新」의 정신에 입각하여 改革되어야 할 倫理的 價値중 다음 어느것에 먼저 착수해야 하겠습니까?

- ① 의타심, 열등의식..... ()
- ② 拜金主義, 個人主義思潮..... ()
- ③ 人間性喪失, 매마른 人情..... ()
- ④ 官僚主義, 展示效果的 위장..... ()
- ⑤ 퇴폐풍조, 사회악 일소..... ()

〈表5〉 위 質問〔1—4〕에 대한 반응

		의 타 심 열 등의 식	배 금 주 의 개 인 주 의	인 간 성 상 실 매 마 른 인 정	관 료 주 의 전 시 효 과	퇴 폐 풍 조 사 회 악 일 소
人文系	남	21.8	9.1	7.27	31.0	21.8
	여	15.4	20.0	7.7	38.5	18.5
社會系	남	10.0	15.0	10.0	40.0	25.0
	여	0	0	0	60.0	40.0
自然系	남	18.2	9.0	10.9	42.7	19.1
	여	33.3	0	6.6	53.3	6.6
計		18.51	11.4	8.88	38.8	19.63

結果는 (表5)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8.8%가 官僚主義와 展示效果的인 僞裝行政을 배격하고 있다.

官은 治者요, 民은 被治者며, 官은 命令하고 民은 服從한다는 秩序—「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잔소리냐」하여 威勢를 세우는 前近代的인 政治觀 부터 뜯어 고쳐나가야 한다는 요구이다.

主權이 國民에게 있고 官은 國民의 위촉에 의하여 公務를 집행하는 公僕이라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아무도 國民앞에서 오만볼손할 수 없을 것이다. 公務員이 謙遜하여 國民에게 親切하고 國民을 높혀 존경으로 대하며 民願事務를 公正 迅速히 처리해 준다면 국민은 公務員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그를 榮光스럽게 대할 것이다. 「스스로 높히는 者마다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마다 높아진다」는 옛사람의 말과 같이 國民에 대한 官公吏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謙遜해야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인즉, 10月維新 課業의 첫 課題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아무리 行政에 능숙한 사람일지라도 國民앞에 萬全일 수가 없으며, 試行錯誤가 전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民으로 부

더 계속 信任을 받으려면 眞實해야 한다. 過誤를 솔직히 시인한 토대위에 前進하는 誠實이 國民의 信任을받게 하는 것으로 안다.

5) 民主主義에 대한 意見

제주지구의 대학생들은 民主主義를 어떤 의미로 보고 있는가? 즉 민주주의의 韓國的 意味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本研究는 ① 自由와 人權保障 ② 平等과 機會均等 ③ 自治와 多數決 ④ 三權分立과 法治主義등 4개의 德目으로 구분해서 질문했다.

질문[1-5] 당신은 민주주의란 어 뜻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유, 인권보장..... ()
- ② 평등, 기회균등..... ()
- ③ 사치, 선거, 다수결..... ()
- ④ 삼권분립, 법치주의..... ()

응답은 예상했던 데로 全體 對象者의 47.4%가 自由, 人權保障 쪽에 기울어져 있고 다음이 平等, 機會均等으로 24.44%로 나타나 있다. (表6 참조)

이러한 경향은 李永鎬교수의 「韓國人의 價値觀調查」¹⁾ 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李教授의 연구는 聯想集團分析의 방법에 의하여 韓國人이 보는 民主主義의 主觀的 意味를 관찰하고 있는데, 國民의 경우 80%가 「自由」나 그와비슷한 自由保障, 人權擁護, 基本權 保障등을 대고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는 그 比率이 무려 9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볼 때 한국인에게는 「民主主義二自由」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금에는 짠맛이 그 眞髓인 것처럼 民主主義에는 自由가 그 眞髓인 것이다. 이와 같이 自由에 대한 강렬한 갈구는 한국인은 歷史的으로 自由를 많이 經驗하지 못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것이다.

〈表6〉 民主主義의 뜻 (질문1-5에 대한 반응)

		自 人 權 保 障	平 기 회 균 등	自 다 수 治 결	三 法 權 分 立 義
人 文 系	남	45.5	30.9	5.5	18.2
	여	53.8	23.1	15.4	7.7
社 會 系	남	75.	10.	15.	10.
	여	20	60	20.	
自 然 系	남	40	22.7	3.6	33.6
	여	53.3	26.7	6.7	13.3
計		47.4	24.44	7.4	21.4

2) 李永鎬: 「韓國人의 價値觀」 1972.4.24. 朝鮮日報 2面

민주주의의 생명은 자유에 있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고 방종을 거부한다. 자유는 싸워서 얻은 사람만이 그 고귀함을 안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우리의 信念이다. 北韓의 南侵으로 우리가 自由를 잃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부터 奴隸와 暗黒의 생활을 맛보아야 한다는 大學生의 信念이 이 統計가 웅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6) 민주정치와 비판정신에 대한 문제

질문[1-6]: 甲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준법정신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나 이에 앞서 개성의 개발과 비판정신의 함양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乙은 「개성의 개발과 비판정신의 함양도 중요하지만, 준법정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① 甲의 意見이 옳다..... ()

② 반반이다..... ()

③ 乙이 내 意見과 비슷하다..... ()

민주정치는 力學的인 견재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이 政治人들을 지켜보며, 壓力으로 견제하지 않을때, 政治人들은 國民의 견제로부터 自由로 위지는 것이다. 이 같은 政治人들의 行動을 無責任하게 만들 可能性이 큰 것이다.

「알몬드」교수는 臣民과 市民을 區別 하는 기준을 그 나라의 政治制度에 의한 區分보다는 오히려 國民의 政治文化的 자세에 따라 區別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臣民”은 主體를 잃고 上部에서 命令하는 대로 움직이는 국민을 일컫고, “市民”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主人이 되어서 그의 政治活動에 있어 主體的으로 움직이는 國民을 지칭한다.

한 나라에 “市民”이 많을 때 그 나라의 政治文化는 民主的이요 반면 “臣民”이 대다수일때는 權威主義的이라고 할 수 있다. “臣民”이 모여 사는 社會에는 民主政治 制度가 土着化하기 어려운 반면, “市民”이 모여사는 社會에서는 權威主義的인 政治가 國民으로부터 抵抗을 받을 것임은 명백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점을 고려에 넣고 學校교육에서 준법정신과 국가에 대한 忠誠心이 더 重靚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個性의 開發과 批判精神의 涵養에 더 重點을 두어야 하느냐를 大學生들에게 물었다.

결과는 全體의 63.7%가 “반반이다”고 모호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表7) 이것은 新生國家의 敎育課程이 바라고 있는 人間像이 西歐的 自由市民의 양성이기 보다는 오히려 民族主義 개념을 바탕으로 한 愛國, 愛族하는 獻身的 活動을 요청하는 人間像을 내세우고 있는 한편, 敎科書的 民主主義의 權念과 갈등현상을 빚고있는 까닭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 증거로는 全體 學生의 20.7가 個性의 啓發이라는 原型的인 民主主義 價値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表7〉 民主政治와 批判精神 (질문1-6에 대한 반응)

		個性啓發과 批判정신이중요	반반이다	遵法精神과 忠誠심이중요
人文系	남	27.3	50.9	21.8
	여	15.4	66.2	18.5
社會系	남	15	75	10
	여	40	60	0
自然系	남	19.1	63.6	17.3
	여	33.3	60	6.7
計		20.7	63.7	17.0

여기서 말하는 批判精神은 否定的이거나 反對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體制에 대한 低抗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따진 다음에 自己行動을 결정하는 態度를 의미한다.

批判의 결과가 政策에 대한 支持로 나타날수도 있고, 반대로 나타날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批判을 모두 否定的인 反對나 抵抗으로 보는 태도는 오해에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否定的인 反對만을 批判이라고 보는 姿勢도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論語 “泰伯篇”에 「그 職位에 있지 않으면 그 政事를 論하지 않는다」(不在其位 不謀其政) 하는 말이 있다. 벼슬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특히 修學途上에 있는 선비가 함부로 政策의 是非를 논한다는 것을 경계한 말로 해석된다. 이처럼 政治의 是非를 논하는 것을 不當하다고 생각한 것은 儒學의 傳統的 思考方式이며, 특히 後世로 내려오면서 政治에 대한 發言을 경계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됐다.

「大學」의 다음 귀결은 이 點을 분명히 하고 있다. 范益謙의 座右銘에 말하기를 첫째 朝廷이 하는 政治의 善惡을 논하지 말고, 邊境의 急報에 관련된 派遣人事에 대하여 是非를 말하지 말것. 이를 듣고 있다.

이러한 東洋倫理的 思考方式이 아직도 우리 生活를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 本研究에서 다음의 質問을 펴 大學生들의 態度를 살펴 보았다.

질문(1-7) 어지러운 世上에 함부로 바른 말을 하다가 희생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오직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은 처세술이다.

註3) 范益謙, 座右銘曰, 一不言朝廷利害, 邊報差除,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小學外篇: 嘉言. 第五 廣敬身篇, 第二十三章.

-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
- ③ 모르겠다..... ()

〈表8〉 비판적 태도 (질문1-7에 대한 반응)

		그 령 다	아 니 다	모 르 겠 다
人 文 系	남	13.7	76.4	29.1
	여	21.5	56.1	21.5
社 會 系	남	0	85.4	1.5
	여	40.2	0.6	20.
自 然 系	남	0.	1.8	18.3
	여	38.5	23.1	38.5
計		18.5	65.5	17.4

表8에서 볼 수 있듯이 全體의 62.5%가 積極的인 社會參與를 해야한다는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종래의 가르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金泰吉 教授가 韓國 大學生들에게 國政에 對한 批判을 물었던 調査¹⁾에서도 같은 結論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政治는 政治家에게 一任하는 것이 옳다. 일반 국민이 政治를 잘하내 못하내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設問에 全體의 78.6%라는 절대다수가 “아니다” 라는 反應을 보여주었다.

7) 民主主義 土着化에 대한 의견

韓國的 民主主義 土着化는 곧 10月維新의 意志를 實現하는 것을 뜻한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民主主義의 價値와 優越性을 믿고, 이땅에 우리에게 알맞는 民主主義가 定着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인위적으로 피하여 나가야만 한다.

화려한 自由民主主義의 理論이 西歐社會에서 아름다운 꽃을 되웠다 하더라도 우리의 特異한 風土에 반듯이 알맞는다고 斷言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와 같이 新生國家에서는 西歐와는 달리, 民族主義에 뿌리박은 自立, 自主的인 愛國愛族의 人間像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그러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理論과 現實의 實體의 乖離

註4) 金泰吉: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1967 一潮閣. P. 60참조

	男	女	文 科	理 科	全 體
그 령 다	14.2%	21.9	18.1	17.1	17.6
아 니 다	83.0	73.2	78.2	79.0	78.6
모르겠다	2.9	4.9	3.7	3.9	3.8

는 우리의 많은 경험으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特異한 狀況下에서 다만 民主主義의 神話만을 믿고 歲月을 보내게 된다면 그 國家의 앞에는 어떠한 悲運이 초래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알맞는 民主主義를 수립하자는 것이 土着化요, 10月維新의 意志인 것이다.

그래서 本研究에서는 韓國 民主主義 土着化에 있어서 그를 阻害하는 要因이 되었던 것을 大學生의 눈을 통하여 알아보고 土着化의 方向을 알아보기로 했다.

질문(1-8)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성장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 두드러진 것은 다음의 어느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통선거제도의 조기도입..... ()
- ② 문맹자와 빈곤자가 많기 때문..... ()
- ③ 일제가 남긴 관준민제의 권위주의..... ()
- ④ 대의정치 경험의 부족과 정치적 불안..... ()

<表9> 民主主義 土着化의 阻害要因 (질문1-8에 대한 반응)

		보통선거제도의 조기도입	문맹자와 빈곤자	관준민제의 권위주의	代議政治 경험부족
人文系	남	3.6	16.3	20.0	60.0
	여	0	18.5	18.5	52.3
社會系	남	5.0	10.0	15.0	70.0
	여	0	0	40.0	60.0
自然系	남	9.1	22.7	24.5	43.6
	여	6.7	13.3	3.3	66.7
計		5.18	18.5	21.11	52.6

表(9)에 의하면 代議政治의 경험부족을 과반수의 학생이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帝의 植民地統治는 韓國의 民主主義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日帝 자체가 비민주성을 길게 지니고 있으므로 日帝의 植民地 統治는 理念과 制度의 한국移植을 지연시켜 韓國의 일반 民衆은 民主政治의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民主政治의 成敗 여부는 自治能力 여하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日帝治下의 韓國에서는 英國 治下에서의 印度와 달라, 政黨과 議會를 통한 民主的 自治能力이 성장할 수 없었다.

日帝의 한국에서는 政黨의 결성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고급관료에의 昇進의 문도 극

히 좁았다. 이로 인한 民主的인 自治能力의 欠如가 해방후 한국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民主主義는 西歐政治傳統의 產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政治傳統을 갖지 못한 韓國에 西歐式 民主主義를 移植한데서 부터 문제는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日帝의 植民地的 權威主義는 해방후에도 指導者중에는 公職에 대한 責任感을 저버리고 政치를 立身出身나 憑公營私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植民地的 權威主義의 존재는 이와 같이 한국적 민주주의 定着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돼 왔음을 本研究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民主政治가 力學的인 關係에서 성립된다 함은 앞서도 강조했거니와 國民이 政治人들을 지켜보며, 壓力으로 견제하지 않을 때 政治人들은 國民의 견제로 부터 自由로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政治人들의 自由는 그들의 行動을 무책임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것이다.

물론 國民으로 부터의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政治人들이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責任性 있게 행동할 수가 있다. 그러나 人間은 不完全한 것이며, 政治人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견제가 他律的으로 加해지지 않을 때 스스로 견제받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다. platon이 말하는 “哲人政治”가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政治的 理念으로서의 民主主義는 西歐的인 產物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그러한 民主主義가 25년동안 우리나라 政治風土에 어느 정도 뿌리박고 있으며, 어느 정도 實現되고 있는가? 유감이나마 民主主義의 土着化에 대해 肯定的인 見解보다도 否定的인 見解가 더 支配的이라는 印象을 주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民主主義가 定着할 土壤이 없었던가?

우리나라 歷史에 民主主義 理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專制主義 李朝社會에서의 民主主義思想은 金時習의 愛民主義이라든가, 李栗谷先生의 人民天心論이라든가 또는 茶山先生의 土地均等分配論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實學精神에서 發見할 수 있었다.

東學亂에서의 民衆要求라든가 甲午更張에서의 要求들은 民衆의 生活權, 더 나가서는 自由와 直結되는 鬭爭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民主主義와 서로 통하는 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한 封建的 專制主義에 대한 批判 또는 抗拒에 불과 했다. 그 뒤 우리는 日帝의 植民地로서 그 壓迫과 그 拘束아래 抗日鬭士와 知覺있는 知識人이 새로운 民主主義 思潮를 흡수하였다.

8. 15이후 價值係系의 전도와 外來思想의 流入으로 막연하나마 民主主義를 부르짖으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民主主義 實踐樣相이 時代的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70年代의 世界 속의 氣流上에서 韓國의 民主主義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基調方向으로 體制確立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① 自由放任의 古典的 民主主義는 止揚되어 不條理한 社會를 바로잡아 나아가야 하며, 民

主義 基本原理를 國民의 意識水準과 生活水準을 고려하여 修正適用 되어야 한다.

② 強力한 行政的 Leadership의 確立方向으로 政治機構는 그 구조적 변경을 해야한다. 특히 平和的 南北統一을 지향하는 對話의 主導權을 행사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해 줄 強力한 힘, 즉 行政的 領導者없이는 民族史의 正統性을 繼受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③ 安定基調위에 能率을 極大化하고 自助力量을 배양하는 「새마을 정신」을 심어야 한다. 즉 韓國的 民主主義는 우선 安定된 강력한 政府를 產出하며, 國民總和를 이룰 수 있는 基반위에 운영되어야 한다.

④ 韓國的 民主主義는 民族의 主體性의 表現이어야 한다. 民主主義 制度는 비록 外來的인 것이긴 하나 우리의 것으로 同化시켜야 한다. 우리의 환경에 맞고 우리 스스로의 生産과 消費에 알맞는 社會制度가 수립 운영되는 곳에 成長될 수 있는 것이다.

本 研究는 經濟開發의 추진과 民主主義의 관계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質問을 통하여 그 反應을 살피더니 아래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民主主義의 成長과 經濟成長을 위한 開發은 兩立되어 나기야 한다는 韓國的 民主主義의 土着化 方向을 提示해 주는 것으로 이해 되는 것이다.

질문(1-9) 甲은 “民主主義가 좀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經濟成長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主張하고,

乙은 “經濟成長을 좀 늦추더라도 民主主義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어느쪽 입니까?

- ① 甲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
- ② 甲의 말이 대체로 옳다..... ()
- ③ 乙의 말이 대체로 옳다..... ()
- ④ 乙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

〈表10〉 民主代와 產業化 (질문1-9에 대한 반응)

		甲이 전적으로 옳다	甲이 대체로 옳다	乙이 대체로 옳다	乙이 전적으로 옳다
人文系	남	16.4	45.5	21.8	16.3
	여	10.8	33.8	27.7	12.3
社會系	남	5.0	40.0	20.0	10.0
	여	0	10.0	0	0
自然系	남	11.8	31.8	40.9	15.4
	여	0	0	0	0
計		11.11	35.18	32.96	13.33

2. 社會的 價値觀

한국사회가 급격히 變動하고 있음은 누구나 是認할 것이다. 오늘날 民主化라는 旗幟下에 急變을 겪고 있는 반면, 産業化에 의한 積極적인 自由의 高揚을 試圖하고 있다. 그리하여 經濟開發計劃의 추진과 더불어 農漁村의 소득증대와 生活의 合理的 向上을 이룩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터이다.

自助, 自立, 協同을 기조로하는 “새마을 운동”이 農村近代化를 위한 新風운동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道民의 精神構造와 生活樣式이 전에없이 달라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뿐만아니라 8·15이후 西歐文化의 흡수, 그리고 6·25動亂時의 避亂民들과의 混居로 濟州道 固有의 諸慣習과 傳統이 동요되고 있음을 느끼게하고 있을 뿐더러, 近來 갑작스런 “봄”을 타고 來往이 빈번해진 内外 觀光客의 出入에서 온 影響등은 濟州道의 固有한 風俗과 諸生活相에 큰 變化를 이르고 있음을 또한 느낀다.

그 가운데서도 形式倫理(個人倫理)가 産業의 發展과 外來文化의 接觸등으로 生産의 社會化, 個人的 社會化가 현저히 들어나 보이는 점이다. 따라서 濟州道에서는 近代市民的 에토스나, 社會的 倫理的 에토스와 함께 다분히 그리고 농후하게 前近代의 運命的 에토스가 곳에 따라서는 殘存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 때문에 이러나는 道德의 복잡한 重層的 構造와 그 발전의 천저한 跋行성을 동시에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生活하고 있는 大學生들의 社會的 價値觀의 變化는 어떠한가를 알고자 함이 本項 研究의 主眼點이다.

1) 近代化와 傳統의 문제

(1) 思考方式에 대한 의견

질문 [2-1]: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통적인 풍습이나 사고방식은 다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① 선적으로 찬성이다..... ()
- ② 대체로 찬성이다..... ()
- ③ 대체로 반대이다..... ()
- ④ 전적으로 반대이다..... ()

[表 11]에서 나타난 反應을 봐서 알 수 있듯이 否定的인 反應이 43% 肯定的인 意見이 37.4%로 나타나 있어 아직도 過渡的 現象임을 드러내고 있다. 傳統 脫皮에 대한 贊反은 人文系 學生은 반반인데 對하여 社會系 學生은 否定 쪽으 기울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近代化란 여러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經濟的으로는 産業化 또는 工業化를 통

한 國民所得의 증대로 볼 수 있을 것이며, 福祉事業의 확대를 통한 社會正義의 實現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社會的으로는 都市化와 交通및 通信施設의 발달로 社會的 移動性이 증대되고 世襲的으로 決定되던 身分階級이 個人의 成就에 따라 결정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血緣的이고 地緣的인 集團形成 경향에서 벗어나 直接的이고 경제적인 集團形成 方向으로 기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政治的으로는 市民의 政治參與가 증대되고 國民에 대한 政府의 隨應性이 擴大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忠誠의 대상이 部族, 氏族的인 것에서 民族이나 國家的인 것으로 확대됨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文化, 心理的 側面에서 보면 近代化는 思考方式의 合理化, 科學化를 의미한다. 近代化에 따라 問題接近에 있어서 迷信的, 家敎的인 態度를 버리고 合理的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表11〉 傳統과 近代化 I (새로운 思考方式: 질문2-1의 반응)

		전적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 반대
人文系	남	10.9	45.5	45.5	7.3
	여	12.3	43.0	40	4.6
社會系	남	5.0	50.0	35	10.0
	여		80.0	20	
自然系	남	22.7	42.7	25.5	9.1
	여		13.3	86.7	
計		14.82	42.96	37.4	7.03

이러한 文化的 心理的 側面의 近代化에 대한 本 研究의 결과는 전체학생의 42.96%가 대체로 찬성이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는데 傳統的 道德의 原理에 대하여서는 전체의 40%가 옛 풍습과 도덕 속에서 우리의 도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表12참조)

이것은 近代化가 傳統을 송두리채 버리는 것이 아니라, 傳統的인 生活樣式이나 思考方式 속에서도 合理的인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믿고, 傳統的인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態度로 임해서 취사선택하는 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질문(2-2)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적합한 풍습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역시 옛 풍습과 도덕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찬성이다..... ()
- ② 대체로 찬성이다..... ()
- ③ 대체로 반대이다..... ()
- ④ 전적으로 반대이다..... ()
- ⑤ 반반이다 ()

〈表12〉 傳統과 近代化Ⅱ (傳統的 道德原理: 질문2-2의 반응)

		전 적 찬 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 적 반 대	반 반 이 다
人文系	남	21.8	36.3	18.2	5.5	18.2
	여	21.5	33.3	20	1.5	24.6
社會系	남	10	15	50	15.0	10.0
	여		80	20		20.0
自然系	남	18.2	42.7	13.6	5.5	33.3
	여	6.6	46.7	13.3		
計		18.0	40.0	18.8	4.9	20.4

2) 觀光資源開發과 自然保存 문제

近代化는 한국사회가 指向해야 할 主要한 目的, 價値라는 데 대해서 아무도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近代化라고 모두 좋다고는 볼 수는 없다. 특히 5·16이후 제주도는 觀光資源開發의 붐이 일면서 自然資源의 保存에 關心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本研究에서는 觀光資源의 人工的인 開發문제와 自然資源의 保存 문제를 놓고 大學生의 意見을 물어 本道 大學生들은 自然保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왔다.

질문[2-3]: 甲은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관광시설을 해야만 관광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乙은 「아름다운 자연을 인공적인 것을 가하는 것 보다될 수록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어느쪽입니까?

- ① 甲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 ()
- ② 甲의 의견이 대체로 그럴듯하다..... ()
- ③ 乙의 의견이 내 의견과 비슷하다..... ()
- ④ 乙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 ()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全體學生의 50.6%가 自然保存쪽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贊成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47%의 學生은 人工的인 開發 또는 施設의 쪽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 (表13 참조)

그런데 어느 쪽이나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은 12%내외인데 反해 大體的인 贊成쪽이 34~38%로써 自然保存 意識이 선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것은 自然保存의 貴重性에 대해서 비교적 鈍感한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自然에 人工을 가하는 것이 文明의 길이다. 그러나 文明의 추구가 조심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文明은 人間生活의 質的向上이 아니라 質低下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도 있는 것임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우리는 先進國에서 脫產業社會의 여러가지 弊病을 본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弊病가 우리의 눈으로는 사치스러운 엄살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所得向上이 되어 가난을 벗는날 先進國이 골치 아파하는 脫產業社會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表13〉 自然保存에 대한 의견 (질문2-3에 대한 반응)

	甲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	甲의 의견이 대체로 옳다	乙의 의견이 내의견과 비슷	乙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
남	14.5	21.8	52.7	11.3
여	13.8	50.8	27.7	7.7
남	10.0	15.0	50.5	0
여	0	80.0	20.0	0
남	13.6	20.9	37.3	19.1
여	0	66.7	41.7	16.7
計	12.6	34.44	38.0	12.6

3) 濟州道綜合開發의 문제

질문[2-4] 제주도 종합개발안을 수립하게 될 경우 다음의 어느 부분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광개발과 자연보존
- ② 축산, 임산개발
- ③ 환금작물, 특수농업원에개발
- ④ 교통 통신개발

〈表14〉 濟州道綜合開發 方向 (질문2-4에 대한 반응)

	관광 개발 자연 보존	축 산 임산 개발	환 금 작 물 특 수 농 업	수 산 개 발 항 구 정 비	교 통 신 개 발
人文系 남	38.2	10.9	32.7	18.2	7.27
여	67.2	7.7	18.5	13.8	0
社會系 남	55.0	25.0	5.0	10.0	5.0
여	60.0	0	0	0	40.0
自然系 남	31.8	27.3	13.6	25.5	1.0
여	60.0		33.3	6.7	0
計	43.69	17.03	18.8	18.52	3.33

表1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43.7%의 학생이 觀光開發과 自然保存을 들고 있고, 나머지 部面의 開發에 대하여는 비슷한 反應들이다.

國力を 富強케 할 産業化 過程에서 가장 必要로 하는 것은 自然資本인 地下資源과 資本이다. 그러나 自然的인 地下資源이 희소한 우리 濟州道의 경우는 外部의 資本을 必要로 하며 外貨獲得에 注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濟州道의 여러 곳을 觀光開發地域으로 公示하였고, 有力한 外貨獲得의 方法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觀光에도 最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山河나 名勝古蹟과 文化財를 保存하며,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國民들의 마음의 자세가 요청되는 외에 이를 더욱 아름답게 開發하는 創意的인 精神이 깃들여 있지 않으면 그 觀光資源은 死藏되고 말며 또 올바로 外部에 알릴 수 있는 宣傳이 필요하게 된다. 濟州道民의 體溫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寮園氣속에서 外國觀光客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친절이 가는 곳마다 표시되기를 바라고자 하는 것이다.

4) “새마을” 事業전개 방향

1970년 부터 우리 農漁村에서는 自助, 自立, 協同을 기조로하는 “새마을 운동” 이 시작되었다. 이는 農漁村 近代化, 農漁民所得增大를 위한 新風運動으로서 요원의 불길처럼 불 붙게한 羣族的 운동인 것이다.

우리의 農漁村이 過去 너무나 消極的이고 締念的이며, 無事安逸에 빠졌던 그릇된 生活 歷程을 걸어 왔음을 시인하고, 이제는 그와 같은 退嬰的인 前轍을 밟지않을 각오를 새로히 하는 동시, 祖上들이 이룩하지 못한 몫까지 우리가 도맡아 노력해야 한다는 使命感과 意欲을 일깨워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1, 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동안 工業立國과 自立經濟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大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새마을 事業” 에 대한 의견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질문[2-5] 우리 나라는 지금 “새마을 사업” 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 사업은 다음의 어느 방향으로 전개해야 하겠습니까?

- ① 모든 주민이 골고루 참여하며 보람을 느끼도록 계획한다..... ()
- ② 관청에서 재정지원과 기술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 ()
- ③ 소득 향상면 보다 정신적 개발면에 치중되어야 한다..... ()
- ④ 지역에 일맞는 산업개발로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새마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나타난 反應을 보면 全體의 과반수인 54%학생이 地

域社會에 알맞는 産業을 개발하여 住民의 所得을 向上시키는데 主眼點으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精神的 啓發面에도 소홀리하지 않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表15〉 새마을 사업의 전개방향 (질문2-5에 대한 반응)

		모든 주민이 보람을느끼도록	관청에서지원	정신개발치중	산업 개발로 소득 향상
人文系	남	23.6	1.8	20.0	54.5
	여	21.5	7.6	24.6	46.1
社會系	남	25.0	10.0	15.0	50.0
	여		60.0		20.0
自然系	남	15.0	2.7	2.7	55.5
	여	40.0		40.0	41.7
計		19.63	5.19	24.7	54.0

우리의 경우 궁핍한 자원일지언정 최대의 력량을 경주하여 빠른 시일 안에 그를 개발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해야만 하는 難題를 안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自立 뿐만아니라, 國防에도 自立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터이다.

때문에 政府에서도 ① 自助, 自立, 協同의 精神的基調 위에서 自立精神이 투철한 農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② 自願指導者, 獨농가가 중심이 되도록하여 開發의 興件이 갖추어진 部落서 부터 支援하고 開發을 돕는 方向을 取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다.

5) 社會參與에 대한 태도

먼저 오늘날 젊은이들이 國家 또는 社會를 위하여 일하는 것과 安樂한 家庭生活에 대한 要求가 배치될 경우 그 어느쪽을 擇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오늘날 한국에는 關心의 중심을 國家社會로 돌리는 일꾼이 必要하다고 한다. 그리면서도 8.15이후 도입된 利己主義내지 個人主義 풍조로 말미암아 여기 일종의 딜레마가 있는 듯 싶어 다음과 같은 質問을 펴 보았다.

질문[2-6] 이 나라 高等教育을 받은 사람은 널리 國家社會 문제에로 力量을 쏟아야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차라리 安樂한 家庭生活에 關心을 集中하여 실속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
- ③ 모르겠다..... ()

이에 대한 反應은 表1에서 보는바와 같이 全體로 볼 때 “아니다”가 49.25%로서 “그렇다”의 35.9%보다 13%정도 많고, “모르겠다”도 11.1%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反應의 표현은 個人主義내지 私己主義態도와 國家 또는 社會의 문제를 걱정하는 態度와의 緊張된 混在를 여실히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個人的 實利로 달리는 見解와 全體의 繁榮으로 달리는 見解가 맞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의 경향은 男子보다 女子 쪽이 實利的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人文系와 社會系 學生쪽이 自然系 學生 쪽보다 國家 社會의 문제를 걱정하는 태도이다. 일찍부터 우리 國民은 「論語」의 “선비로서 편안한 살림에 愛着한다면 선비라할 것이 못된다” (士而壤居, 不足以士矣) 라든가 “君子는 食事に 배불음을 구하지 않고 居住에 安樂함을 구하지 아니한다.” (論語: 學而篇, 君子食無求飽居無求安) 등에 것이온 터이요, 人間像의 追求에 있어서도 西歐의인 自由市民에의 接近보다 오히려 新生國 民族主義의 英雄崇拜쪽에 力點을 두어온 터이다.

〈表16〉 社會參與문제 (질문2-6에 대한 응답)
- 國家社會문제와 安樂한家庭生活 -

		안락한 가정생활	社 會 參 與	모 르 겠 다
人 文 系	남	32.7	60.0	7.3
	여	50.8	38.5	10.8
社 會 系	남	25.0	55.4	10.0
	여	40.0	40.0	20.0
自 然 系	남	38.0	49.1	12.7
	여	46.7	40.0	16.7
計		35.93	49.25	11.1

한편 大學生들의 社會參與에 대한 積極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알아 보았다.

질문[1-7]: 대학생은 어느 정도 정치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아주 적극적으로..... ()
- ② 약간 적극적으로..... ()
- ③ 약간 소극적으로..... ()
- ④ 아주 소극적으로..... ()

그 反應을 (表16)에서 볼 수 있다. 절대적 다수인 64.07%가 약간 적극적으로 參與해

야 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洪承^三 教授의 研究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찾아볼 수 있었다. (韓國人의 價値觀研究) 洪教授의 研究에서는 “보통의 참여”가 57%로 나타나있다.

〈表17〉 社會奉仕活動에의 參與度 (질문2-7의 대한 응답)

		아주 적극적으로	약간 적극적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人文系	남	9.1	70.0	20.0	1.8
	여	20.0	67.2	13.8	3.28
社會系	남	10.0	75.0	10.0	5.
	여	0	60.0	40.0	0
自然系	남	18.2	61.8	20.0	6.7
	여	13.3	67.0	13.3	0
計		15.56	64.07	17.7	1.85

6) 宮合에 대한 態度

결혼 상대자를 선정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要因 가운데는 宮合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韓國 社會의 현실이다. 宮合이라는 것은 新郎 新婦 四柱를 五行에 맞추어 보아 吉凶을 점치는 한국의 傳統的 迷信이다.

따라서 宮合觀이 한 사람의 傳統性, 非傳統性을 알아 보는데 편리한 것 같아서 濟州道의 大學生들에게 宮合의 必要性을 質問해 본 것이다.

질문(2-8) 知性人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통적 습관에 따라 결혼할 때 宮合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① 宮합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다..... ()
- ② 宮합을 볼 필요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表18〉 宮合의 必要性 (질문2-8의 대한 응답)

		필요하다	불필요	모르겠다
人文系	남	10.9	72.7	12.7
	여	9.2	58.5	23.1
社會系	남	50.0	50.0	0
	여	0	40.0	40.0
自然系	남	10.9	80.0	9.1
	여		73.3	26.7
計		12.59	70.0	14.07

(表17)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이 宮合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절대적이다. 즉 70%의 학생이 특히 女大學生쪽이 절대적인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12.59%의 學生이 宮合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그것은 父母들에 대한 同情에서 온 것이지 結婚相對者는 스스로 選擇하려는 경향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

7) 父母喪에 대한 意見

질문 [2-9]: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내는데, 이것은 너무 길다. 1년쯤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 ① 전적으로 찬성이다..... ()
- ② 대체로 찬성이다..... ()
- ③ 대체로 반대이다..... ()
- ④ 전적으로 반대이다..... ()

〈表19〉 父母喪을 1年制로 하는 意見 (질문2-9에 대한 반응)

		전 적 찬 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 적 반 대
人 文 系	남	45.5	40.0	12.7	1.8
	여	39.9	36.9	16.9	9.2
社 會 系	남	55.0	40.0	5.0	0
	여	20.0	80.0	0	0
自 然 系	남	48.2	39.1	9.1	4.5
	여	26.7	53.3	23.1	0
計		43.7	40.37	11.85	4.45

절대적 다수의 학생이 1年喪을 찬성하고 있다. 즉 43.7%는 전적으로 찬성 40.37%는 대체로 贊成한다는 쪽에 의견을 모으고 있고, 이에 대해 反對를 표하고 있는 학생은 불과 16.2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洪承稷교수의 연구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在來式 祭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質問의 응답란에는 在來式 祭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人口層이 「時代에 맞게 是正되어야 한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5) 그런데 洪

5) 洪承稷. 韓國人の 價値觀 研究.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1, P. 88

	祭 祀 觀			
	그대로 유지 되어야함	따르고 람 따라도 좋다	싫은사기 대에 맞게 시정 되어야 없는다	무조건 없는다
農 民	36.08	7.10	54.83	1.99
企 業 家	15.71	10.73	68.97	4.95
敎 授	4.34	18.62	71.94	4.85

教授의 연구에 의하면 祭祀는 무조건 없어야 한다는 對答을 표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로 農民이 1.99%, 企業人이 4.95% 大學교수가 4.85%로 되어 있다.

둘이켜 보면 孝道와 先祖崇仰의 사상은 韓國人의 중요한 生活理念의 하나이다. 先祖崇拜는 報本反始의 道德性을 띠운 것이면서, 또 일종의 信仰的 要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古代韓國人의 孝의 倫理觀은 先祖가 배프는 높은 慈愛를 회상케하여 報恩의 念을 생기게끔 하였다.

韓國에서는 李朝에 이르러 父母의 喪을 三年制로 하는 慣習이 전해지기 시작해 四禮의 하나로 줄곧 踏襲되어 온 터이다. 三年喪의 期間에 관한 시비는 일찌기 孔子 때에도 있었던 듯 싶다.

宰我가 喪服은 一週年으로 그치는 것이 좋지않느냐고 主張한데 대하여 孔子는 反對의 뜻을 표하면서, 宰我를 비난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3年을 지내야 父母의 품을 떠날 수 있다. 그러므로 三年喪의 制度는 온 세계에 共通된 禮法이다」(論語：卷之九，豫之不仁也。子生三年，然後免於父母之懷，夫三年喪 天下之通喪也。)

그러나 새마을 운동이 展開되고, 維新課業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요즘에 와서 3年喪의 期間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다. 특히나 새 「가정의례 준칙」이 公布된 뒤에 와서는 社會生活의 多忙한 것과 經濟的 精力의 浪費의 止揚등으로 一年喪을 외치는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데 大學生들의 意見도 이들과 같은 反應이었다.

8) 墳墓制 改革에 대한 의견

질문 [2-10] 분묘를 경작지 안에 쓰는 좋지 못한 풍습을 고치려면 어떤 일에 중점적으로 指導를 펴나가야 하겠습니까?

- ① 法律로 강력히 단속한다..... ()
- ② 교육기관에서 善導하는 운동을 벌인다..... ()
- ③ 풍수설에 대한 잘못을 教授가 지적한다..... ()
- ④ 새마을 운동으로 住民의 覺醒을 기초로 한다..... ()
- ⑤ 火葬施設을 現代化한다..... ()

濟州道에는 風水說에 의해 農耕地 안에 일지라도 墳墓를 써서 子孫의 發福되기를 바라는 風俗이 다른 地方 보다 월등히 강한 곳이다. 특히 墳墓의 돌레를 담으로 축장하여 墓碑와 墓石등을 시설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面積은 15~30坪이다. 一部 富裕層에서는 共同墓地등에 先祖의 墓를 쓰는 것을 수치롭게 여기는 觀念이 상당히 支部的이어서 農耕地의 浸飾과 더불어 社會問題로 등장되어 온지 오래지만 如前 개척되어 있지 못한채 있는 惡習

이다.

경작지내 암매장 풍습 개혁 [질문 2-10에 대한 반응]

<表20>

		강력한 처벌	선도 운동 전개	대학교수의 계도	새마을운동 으로 추진	화장시설 현대화
人文系	남	18.2	9.1	55.0	18.2	18.2
	여	7.7	21.5	0	40.0	30.8
社會系	남	25.0	15.0	0	50.0	10.0
	여	0	0	0	80.0	20.0
自然系	남	10.0	19.1	10.0	38.2	22.7
	여	6.6	6.6	6.0	46.7	33.3
計		11.85	17.4	15.55	35.19	22.96

이런 惡習의 改革에 대한 大學生들의 의견은 法에 의한 강력한 國策이나 善導를 위한 캠페인 보다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効果的이라는 35.19%의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반면 農耕地內 暗埋藏을 團束하려는 火葬施設 또는 公園墓地 등의 現代化로써 利用者의 不便이 없도록 誘導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비단 農耕地內의 暗埋藏뿐만 아니라 山林保護나 牧野地의 開간을 위해서도 墳墓葬制는 合理的으로 改革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 것이다.

IV. 要 約

이제까지 19장의 數表를 土臺로 삼고, 各項이 얻은 數字에 따라, 項目 하나 하나에 대한 大學生들의 評價를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제는 앞에 소개한 數字의 結果를 綜合적으로 考察함으로써, 濟州道 地域의 大學生의 政治的, 社會的 價値에 대하여 전체적인 素描를 試圖키로 하자.

1. 政治的 價値觀의 要約

1) 維新課業의 추진에 대한 의견

가) 維新憲法案이 國民의 絶대적 多數로서 通過를 보게된 이유를 南北對談에 있어 政治的, 社會的 體制의 改竊의 要請이라는 學生이 35%였고, 社會의 不條理的 病弊의 祛除에 대한 기대에 33.7%의 學生이 反應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전체의 25.9%의 學生은 強

力하 指導者가 요청되며 變化하는 國際情勢와 亞細亞의 氣流에 대응하는 政治的 權力構造가 요청되는 연유로 보고 있다.

나) 維新課業 추진 담당자에 대하여는 34.45%의 學生이 言論人과 一般 知性人의 活動과 自覺있는 先導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한편, 大學生과 青年團體의 活動에 기대를 걸고 있는 學生이 30.36%이다. 일종의 엘리트意識으로 보이기는 하나 4.19대의 敎育者와 宗敎人에 대한 기대와는 對照的인 傾向을 시사하고 있으면서 既成 政治人에 대한 信賴度는 僻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다) 地域社會의 指導者觀

地域開發에 앞장서야 할 指導者의 資質에 대하여 大學生들의 反應은 지식과 判斷力의 所有者와 正直과 公正한 性品の 所有者를 들고 있다.

라) 改革되어야 할 倫理的 價値에 대해서는 절대 多數의 학생들이 官僚主義 및 展示效果의 行政姿勢를 배격하고 있다. 이는 지금 까지 타성으로 흘러온 일종의 形式主義 내지 權威主義의 잔재에서의 脫皮를 서두르고 있는 傾向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 되며 公職者들의 親切과 民主化가 지극히 요청되는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2) 民主主義觀

가) 民主主義 意義에 대한 의견

전체 對象者의 47.4%가 自由, 人權保障쪽에 기울어져 있고, 다음이 平等, 機會均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民主主義=自由라는 原型的 民主主義의 理論이 아직도 學生들의 머리를 支配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批判精神의 문제

全體 對象者의 63.7%가 敎育內容에 있어서의 遵法精神의 강조와 批判精神의 함양에 반반의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지러운 世上에 함부로 바른 말을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學生이 全體의 18.5%밖에 없고 批判을 해서 是非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學生이 65.52%였다. 이러한 反應은 知性人들의 社會參與를 부르짖는 傾向으로 받아들여지며, 특히 젊은 世代에 있어서 그러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 民主主義土着化의 阻害要因에 대하여는 過半數 學生이 代議政治경험의 不足을 들고 있고 21.11%의 學生이 官僚主義를 내세우고 있다. 10月維新課業으로써 먼저 是正되어야 할 倫理的 價値로도 官僚主義 배격을 前項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大學生들의 눈에 비친 民主化의 方向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土着化의 方向을 學生들은 能率의 極大化, 自主性의 確立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社會的 價値觀의 要約

1) 近代化와 傳統의 문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發展하려면 傳統의인 思考方式이나 風習을 다 버리고 새로운 思考方式을 배워야 한다는 主張에 贊成하는 학생이 57.78%이고, 反對하여 保守의인 傾向을 고집하는 學生은 全體의 38.3%밖에 아니되었다. 그러면서 舊習내지 傳統을 無現하거나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새 時代의 倫理도 옛 風習과 道德 속에서 기초를 찾아야 한다고 58%의 학생이 主張하고 있다.

2) 自然保存 문제

對象者의 50.6%의 학생이 自然保存이 人工的인 觀光資源의 開發보다 좋다는 의견이고 47%의 학생만이 人工的인 開發로서 觀光誘政를 피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大體로 봐서 自然保存에 대한 의식이 鮮明하지 못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제주도 종합開發의 重點

제주도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세울경우 가장 力點을 두어야 할 部面을 全體의 43.69%가 觀光開發을 들고 있다. 觀光收入은 外貨獲得의 손쉬운 方法이므로 濟州道가 지닌 異國的인 情趣性和 自然資源을 기초로 觀光事業의 振興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새마을 事業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는 濟州道地域에 알맞는 產業의 開發로 農漁村을 비롯한 이地域에 알맞는 產業의 開發로 農漁民을 비롯한 이 地域住民의 所得向上에 直結되는 事業을 전개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24.7%의 학생은 産業化와 동시에 精神面의 啓發도 併行되어야 한다는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5) 大學生들의 社會參與에 대한 態度

國家社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安樂한 家庭生活를 영위하는 것보다 보람을 느낀다는 모험적인 社會參與를 主張하고 있는 학생이 全體의 49.25%이고, 35.93%학생은 안락한 가정 생활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社會參與度에 대하여는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것이 좋겠다는 學生이 全體의 64.07%이고 약간 소극적으로 參與하는 것이 좋겠다는 학생은 17.7%인 것을 보면 學生들의 社會參與를 적극적인 方向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宮合에 대한 態度

結婚을 할경우 宮合을 볼 必要가 있다는 學生은 全體의 12.59%밖에 없고 不必要하다고 主張한 學生이 70%였음을 볼때 傳統的으로 보아오던 配偶者 選擇에 있어서의 宮合은 僻 회의적인 迷信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7) 父母喪의 一年制에 대하여

全體學生의 83.4%의 學生이 一年喪을 찬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學生이 43.7%이다.

이것은 家庭儀禮準則의 啓蒙의 영향도 있는 것이지만 經濟的인 浪費에 대한 嫌惡와 한 편 冠婚喪祭의 儀式을 철저하게 지켜오던 傳統的인 집안이 새로운 時代와 더불어 차차 經濟的으로 몰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관련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韓國의 家族價値觀에 變化가 생겼다는 것은 다시말하면 儒敎的 傳統이 弱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받아들여 질때 새로운 價値觀의 確立이 매우 시급함을 切感케 하는 것이다.

8) 暗埋藏 團束에 대한 의견

耕作地內的 暗埋藏 團束에 대하여도 法律至上主義로 處罰의 방법보다 새마을 운동등 國民的 自覺의 促求와 指導層의 率先垂範을 主張하고 있는 學生이 全體의 35.19%였고, 火葬施設等의 改良을 요청하는 學生도 22.96%였다. 말하자면 대다수의 學生이 法律的인 他律的 制裁보다 自律的인 自覺을 土臺로한 시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洪承稷, 「韓國人的 價値觀研究」, 서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1
 金泰吉,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서울, 一潮閣, 1967
 洪承稷, 「知識人과 近代化」, 高大社會調查研究所, 1967
 李永鎬, 「韓國人的 價値觀」, 서울, 조선일보, 1972
 국토통일원, 「통일농촌」, 서울, 국토통일원, 1971~1972
 " 「통일에 관한 논문집」, 서울, 국토통일원, 1971~1972
 제주도, 「제11회 통계연보」, 제주도, 1972
 梁正圭, 「耽羅의 黎明-濟州의 어제오늘」, 서울, 光明出版社, 1970
 江大淸一, 「哲學的 價値觀의 研究」, 東京, 弘文堂, 昭32年
 淡野安太郎, 「社會倫理의 探究」, 東京, 勁草書房, 1963